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이스라엘의 회복

(미가 4장 6 - 13절)

1.구원의 날

그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집권자들이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시는데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통하고 분한 일이 생겨질 때마다 성도들은 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 남은 자를 모으실 것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7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발을 저는 사람들처럼 별로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이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과 같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찌꺼기와 같은 부끄러운 사람들을 주님은 남은 자로 부르시어 마침내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비유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할 자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났던 자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그 날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후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래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2.이스라엘의 회복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8절).

‘너’,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지키는 망대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열국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은 딸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전성기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때의 영광과 솔로몬 왕 때의 권능 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딸 예루살렘과 같이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망대처럼 위풍고 고독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역사는 교회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사로서의 역사를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실의에 빠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낙담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의 승리로 역사가 장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고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일은 결코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9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뿐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희망이 없으면 해산의 수고는 고통으로 끝날 뿐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이 내놓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10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종종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수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난을 잘 이기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며 구원의 체험을 맛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교회의 승리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11절).

이방 사람들은 시온을 치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교회가 가끔 넘어지고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제하는 이유는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는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실의에 빠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낙담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최후는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때리려고 모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12절).

이제 딸 시온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모든 이방과 모든 악한 세력을 치라고 하십니다(13절). 교회는 결국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년 여름 수련회 시작

7월16일 대학부를 시작으로 금주 중 4개 부서에서 가져

뜨거운 여름을 맞아 말씀을 가까이하며 삶의 새로운 충전 기회를 갖는 여름 수련회가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를 주제로 금주부터 시작된다. 금주 수련회를 갖는 부서는 대학부와 장년 1~5부, 사랑부, 신혼가정부 등 4개 부서로 각 부서별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알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각 부서별 자세한 수련회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대학부	7/16 - 7/19	원주치악관광농원	하나님, 비전, 나 그리고 대학부	이종윤 서명철
사랑부	7/17	교회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이성득
신혼가정부	7/17 - 7/19	현대 웨일리 콘도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이규정
장년1~5부	7/17	교회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김운호

방글라데시로 선교사 파송한다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를

교회는 방글라데시 국내 사정의 악화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를 방글라데시 현지인 선교사로 세우기로 하였다.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는 현재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다카 에덴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우리교회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 받아 선교에 전념하신 바 있다. 다시 3년간 우리교회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될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의 역량과 방글라데시 국가의 안정과 선교의 원활함을 위해 기도한다.

제3기 단기선교팀 단원 확정

8월 4일(월) - 14일(목)까지 10일간 캄보디아로

오는 8월초 북쪽의 불모지로 파송을 받아 선교활동을 펴게 될 제3기 단기선교팀의 단원이 확정되어 출국을 위한 수속에 들어갔다. 그동안 3기 단기선교팀은 매주 금요일 503호실에 모여 선교에 필요한 현지어와 각종 선교 프로그램 등을 익히며 기도로 준비하여 왔으며 이제 파송을 3주 앞두고 있다.

동족간의 상잔으로 얼룩진 킬링필드의 현장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메마른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녹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제3기 단기선교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분	성명
목사	김운호
장로	김광신 하영수 이영기 이변성
권사	곽 숙 이영숙 김찬진
집사	이남성 최명열 박길수 김영주 문옥일
청년부	임예경 손재영 나소정 최요섭 최이영
대학부	하예심 노재균 이한나 손윤목
고등부	인요셉

개원 중학교 기독교 교육반 내교

지난 12일(토) 중등부(부장: 노문환 장로)와 개원중학교 기독교 교육반 학생과 인솔교사(이상은 선생: 본교회 성도) 등 15명은 우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와 교회안내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었다. 이날 중등부 지도 운영국 목사는 말씀을 전하였으며 중등부 교사중 개원중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노재균 성도가 참석하였다.

현재 우리교회 중등부에는 개원 중학교를 중등부 중점 전도활동 대상 학교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2003 청년 Calling 바로 오늘!

3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갖는 청년 calling festival이 바로 오늘이다. 78년생 이상 청년부에 출석하지 않는 미혼 청년들이 calling행사를 통해 청년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

순례자 600호

순례자가 오늘로 600호를 발간하였다. 지난 1991년 11월24일 첫호를 발간한 이후 한 주간도 빠짐없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며 문서선교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성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시146:1-2)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psalm 146:1-2)

2003년 농촌전도대

우리는 이런 교회와 지역에서 전도한다

이규정목사(농촌전도대 지도교역자)

금년도 농촌 전도대가 파송될 교회는 충남 공주의 승원교회와 충남 보령의 신덕교회이다.

1차 서류 조사 이후 두 차례의 현지 답사를 거쳐 선정된 두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주 적절한 전도의 장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대 파송에 앞서 각 교회의 형편을 미리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먼저 승원교회는 축산과 논농사를 골고루 경영하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곡리 50여호가 비스듬히 펼쳐져 있는 마을의 위쪽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한 교회이다.

김영주집사, 이해순권사 가정과 결연이 되어 있으며 젊고 사명감이 충만한 김종권목사(36세, 1남1녀)가 6년째 목양을 담당하고 있다. 비교적 목회자의 이동이 잦은 농촌

교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김 목사가 얼마나 이 교회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김목사의 노력의 결과로 교회와 주민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복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약하다. 따라서 이번 전도대는 이 마을 50호를 모두 복음화하는데 목표를 두려고 한다. 대부분의 주민이 60대 이상 고령자이며 장년 19명, 중고7명 정도가 모이고 있으며, 교역자자녀 2명을 제외하고는 초등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덕교회는 전국 축산농가의 60%를 차지하는 충남 홍성군 내의 60%가 산재해 있는 천북면 신덕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 교회 건물의 자리가 보령시와 홍성군을 동시에 걸쳐 있다) 모세남선교회와 결연된 교회이며, 농촌 목회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3년 내에 100명

의 성도를 목표로 힘찬 출발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정문화전도사(2녀)가 부임한지 약 2개월정도 된다.

장년18명, 중고11명, 유초등 16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역적 특성상 비교적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마을이다.

신덕교회의 전도대상 지역은 교회 소재지인 신덕리를 비롯한 5개리 200여가구 450여명의 주민들이다. 따라서 이곳의 전도를 위해서는 승합차2-3대와 운전자가 필요하다. 두 교회 모두 취사시설과 식당, 화장실, 숙소 등 부대 시설은 마을회관과 선발대가 설치할 간이 건물을 이용할 예정이다.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척박한 땅을 일구는 복된 천국 머슴으로 이 여름 우리를 초청하신다.

신혼가정부

옥종호 성도(12교구, 신혼가정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롬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은혜와 사랑의 대향연을 펼치고자 당신의 가정을 초대합니다.

저희 신혼가정부는 오는 7월 17일 ~19일(2박3일간)

강원도 속초시 현대 해밀리콘도에서 "생명의 성령이여 우리가정의 주인이 되소서" 라는 주제를 하여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갓난아기와 3-4살 된 유아들을 데리고 선뜻 수련회를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신혼가정부에는 임신한 몸으로 또는 갓난아기와 유아들을 데리고 수회의 수련회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이들 모두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한 참석하신 애기들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프로그램 가운데 전문 강사분이 준비하신 "부부 의사소통 워크샵"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신뢰를 더욱 쌓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휴가 계획하느라 시간과 돈 낭비를 하지 마시고 신혼가정부가 마련한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동시에 실약산과 동해바다에서 휴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에서부터 결혼 후 5년까지의 부부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시지 않겠습니까?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도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년부 한상은 목사(장년부 지도교역자)

2003년도 장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17일 오전 9시40분부터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특강강사로는 장신대 교수이신 오성훈 교수님이 오십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시간에는 공동체 훈련시간과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은 장년1-3부와 4-5부로 나누어서 이용식 목사님, 김희 선생님 등이 진행하시며, 기도회는 마지막에 전체가 함께 모여 진행합니다. 모든 수련회의 일정이 마치는 시간은 오후 4시 정도가 될 것입니다.

6시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사랑부 이승우 집사(11교구, 사랑부 부장)

11년의 성숙함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부가 몸은 부자유하고 말과 행동은 어눌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7월 17일 갖고자 합니다.

무더운 이 계절에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라는 주제로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동화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육의 양식, 식탁교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마음을 통해 가장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늘 배우고 느끼는 우리 교사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자 오래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해 왔으며 주니과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학

이 걸리는 긴 여정을 통해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이후로 8년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고 특별한 치료를 하지도 못했지만 자연적으로 건강을 찾아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지내신다. 워낙 말씀이 없으신 임 장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지난날을 슬 회하신다.

한편 노영숙 권사님은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술, 담배 안 하는 신랑을 찾다가 임 광식 장로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최근에 사랑하는 후배 박철훈 장로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임 장로님은 마음이 좋지 않으시란다. 결핵 때문에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던 자신은 이처럼 건강한데 동생 같은 유윤진 장로와 박철훈 장로, 아들 같은 나희주 장로가 앞서 갔으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다고 혼잣말처럼 하셨다.

서울교회가 더욱 부흥해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모두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 이종윤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많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야 할텐데... 임광식 장로님의 기도제목은 한결같이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자신은 끝까지 서울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 허속(편집부)

장로가정탐방-임광식 장로 가정편

모든것이 하나님은혜

순례자는 오늘부터 격주로 장로님 가정을 탐방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신 임광식 장로님은 올해 81세로 1966년 장로 장립을 받은 후 줄곧 시무장으로 봉사하시다가 지난 2000년 12월 25일 서울교회 입당과 동시에 원로 장로로 추대되신, 서울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장로입니다. 장로교회는 관례적으로 70세에 은퇴를 하나 우리교회에는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은퇴제도가 없다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 10년간 건축위원장과 재정위원장으로 더 일하시다가 81세가 되어 은퇴하시게 되었다.

임광식 장로님은 노영숙 권사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시고 2명의 사위와 2명의 자부, 손자녀 9명을 두셨고, 자녀손들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다복하신 어른이시다.

임 장로님의 믿음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부친께서는 일본에서 명치대학을 다니시다가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당시 집에 있던 귀신 단지 30여 개를 불태우며 본격적인 기독교인이 되셨다고 한다.

청년시절 고향에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가신 임 장로님 역시 젊은 나이에 결핵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는데 항생제가 없던 당시로서는 결핵이 치사율이 90%나 되어 약관의 나이를 암울하게 보내셨다. 타향에서 이처럼 중한 병을 얻으신 임 장로님은 한국으로 오기조차 힘들만큼 쇠약했지만 친구 두 명의 부축을 받고 70여 시간

70인전도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박이선 집사
(11교구)**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올 1월에 등록하고 새가족부 수료 후 70인전도대에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과 70인전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목

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하며 수시로 하나님의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지만 한편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3-4일씩 전도하기 위해 교회에 올 때 마다 왕복 2시간이 소요되었고 연로하신 어머니의 저녁식사 준비로 일찍 귀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전도대상자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몰론이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없이 쫓겨나고 맞기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로지 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매주 10시간 이상씩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마아파트 21동에 사는 두 아이는 한번도 교회에 와 본적이 없는 부모님을 비롯해 온 가족이 불교신자였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찾아간 결

과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3월30일 주일에 두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3개월간 9시 예배와 유, 초등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전에 사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다니러 오셨다가 전도를 받고, 5월11일 주일에 등록하시고 현재 새가족부에서 6주째 교육을 받고 계신데, 주일 성수를 위해 매주마다 대전에서 올라오십니다.

제가 성경 찬송을 선물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아들, 며느리 좀 전도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례는 은마아파트 7동으로 전도 나가서 한 가정의 문 앞에 서서 함께 기도드렸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분이 교회에 가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혼 전에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도 하신 분이었는데 불교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시댁의 심한 반대로 25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5월11일 등록하셨고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후 8층 만나 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많이 우셨습니다. 요즘에는 그분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청실 상가의 가게로 찾아가는데 지금은 저희 전도팀을 반겨주시고 함께 기도도 드리십니다.

또한 사례는 5월31일 토요일, 아침부터 전도를 시작하여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날씨는 무덥고 배는 고프고 전도는 안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대명중학교 남학생 8명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학원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늦잠자서 못 일어나요."하며 흠뻑 흘렸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일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집사님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4명은 돌아가고 4명은 남았으나 엄마에게 혼난다고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교복에 새겨진 이름만 간신히 적은 후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들고 곧바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 학생들을 내일 아침 일찍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음날인 6월1일 주일, 약속시간에 4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 와 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주었고 202호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에서 목사님은 "오늘 교회 출석이 여러분 인생에 turning point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현재 3주째 중등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70인전도대는 은마아파트 442세대와 교회 주변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전도할 것입니다. 70인전도대가 방문하는 가정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남편 원용규 집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관별 식당 봉사자

- 7.13(주) - 바울 남선교회 7.20(주) - 엘리아 남선교회
- 7.27(주) - 모세 남선교회

등정

- **특녀:** 이장로, 이현주 성도 가정(5교구)
- **기증:** 예완석, 송금자 집사 가정 고무장갑 및 위생장갑 기증
- **수상:** 김금준 집사(4교구) 7월의 국민은행인상 수상(전국최우수 사원 선정)
- **이사:** 김성철 집사 양주화 집사(10교구) 상일동 우성빌라 7-302 장지옥 성도 이주는 성도 가정(10교구) 상일주공apt 501-302
- **금주의 식사:** 문주현, 민혜정 성도 (부모님 장례 은혜중에 마치고)
- **파이프오르간 제작 기술자 간식제공:** 전인화, 최난수, 노영숙, 김복녀 권사, 허숙, 이자혁 집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단기선교를 지원하며

잡힌바 되어

노재균(대학부)

나는 원래 모태 신앙인이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었던 부모님 덕분에 믿음의 유산을 받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 지냈고 교회는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녔다.

나에게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없었고 나의 앞길은 오로지 목사 되는 것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중, 고등부를 거치면서 더욱 믿음이 성장했으며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인정하고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서약들이 이제는 나를 붙잡고 있고, 사명감을 갖게 해준 것이

다. 나의 믿음도 나의 비전도 내가 원해서 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에게 잡힌바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로 하였다. 재작년 1기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더욱 충성된 일꾼이 되길 소망한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성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 농촌 전도대 파송을 위하여
4. 나라의 안영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